

“독화살개구리 보러오세요”

국립생태원 8월말까지 특별전 개최



국립생태원이 8월 말까지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내에서 국내 최초로 ‘독화살개구리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특별전에서 독화살개구리 1종 25개체와 덩피나무개구리 1종 15개체를 선보이며 국내산 양서류인 무당개구리, 물두꺼비, 두꺼비 등도 함께 비교 전시를 한다.

독화살개구리는 독성이 아주 강해 중남미 원주민들이 독을 채취해 화살촉에 발라 전염이나 동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한 양서류로 유명하다. 전세계에 175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독을 가진 것은 65종에 이른다.

화려한 색과 무늬의 보호색으로 포식자를 위협하며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면 몸에서 팍

처럼 독을 흘려 보낸다. 독성이 강한 종은 만지지만 해도 생명에 치명적이다.

독화살개구리는 전라적으로 10개 미만의 알을 낳아 안전하게 보살피는 난생(卵生)으로 부성애가 매우 강하다. 수컷은 새끼를 돌보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알을 지키거나 부화된 올챙이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함께 전시되는 덩피나무개구리는 온도와 주위환경에 따라 갈색과 회색, 또는 예메랄드빛, 밝은 녹색 등 다양한 색깔로 변하는 등 다채로운 보호색이 특징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원산의 청개구리과에 속한 청개구리의 일종으로 특유의 생김새에서 유래한 시무룩청개구리

(dumpy tree frog)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독화살개구리의 행동 및 진화전략에 대한 소개와 주사형전자현미경(SEM)으로 독화살개구리와 덩피나무개구리의 피부조직을 비교한 사진도 전시한다.

이번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처장은 “이번 독화살개구리 특별전시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개구리와 우리나라 토종 양서류 등을 상호 비교하면서 청소년에게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식지 파괴로 양서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며 우리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2분 단축

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6개월 간의 안건기간을 마치고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전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의 기준 이어서 10여 년간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 공회전 허용 시간을 기존의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또한, 아직까지 여름과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공회전 역시 줄여가기 위함이다. 대기온도가 25℃ 이상이거나 5℃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의 10분에서 5분 이내로 제한기준을 강화하고, 여름·겨울철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일 때는 자동차 냉·난방이 필요함을 감안해 제한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일반 장소에서는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제한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2662개소의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어긴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 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방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SL공사, 스리랑카 매립장 현지 파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9일 스리랑카 최초의 위생매립장인 돔페(Dompe)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한 향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침출수처리 및 위생매립 전문가를 파견했다.

SL공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기술자문 및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돔페 매립지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스리랑카 최초의 위생매립지로 경제적·사회적·환경

경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L공사는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명의 전문가가 파견, 매립장 운영에 관련된 위생매립장 추가지원 검토와 폐기물 매립초기 현장 지도 및 시설물 운영 하자사항 점검, 침출수처리장 기술지원 등 최적의 운전 방향을 제시한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국으로서 환경 분야에 대한 역할을 제시했다는 의미”라며 “스리랑카에 침출수 문제 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 피해를 줄일 희망의 빛을 안겨 준 사례”라고 말했다

우도명 기자

환경·통계 분야 교육 협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통계교육원 교육확대 업무협약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통계교육원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환경과 통계분야 교육의 교류 확대와 운영을 위해 대전시 서구 통계교육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태환경탐방 과정, 통계분석 기초 과정 등을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강의자료 제공 및 교육시설 이용, 상호간의 전문강사 출강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교육 수요조사 및 사이버 콘텐츠 변환 등을 거쳐 10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좋은 예로 양 기관의 교육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분야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환경과 통계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집진적으로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산업 현장 환경규제 합리적 개선

7개 경제단체 개선과제 건의 적극 검토

환경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을 착수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폐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데, 현행법상 폐놀류에는 독성이 없고 녹차 등 식품에도 있는 폴리페놀까지 포함하고 있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폐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

이에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폐놀류에서 분리해 측정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폐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실제 배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대신 기기의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최근 기술의 진전으로 마력이 큰

기기도 소음을 적게 배출하는 저소음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는 기기의 ‘마력’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하는 소음까지 측정해 소음 배출시설을 관별토록 함으로써 고효율 저소음 기기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절차 및 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용역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간 구축한 자료를 저가(생산비 5%)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선적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한 후 저가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중 아주 작은량으로도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측정기기 성능이 그동안 검출하지 못한 극미량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게 발전됨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 중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을 분리해 수용하거나 규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건조 등의 방법으로 부피와 량을 줄이는 감량기기는 현재 일 처리능력 100kg 미만이지만 별도 신고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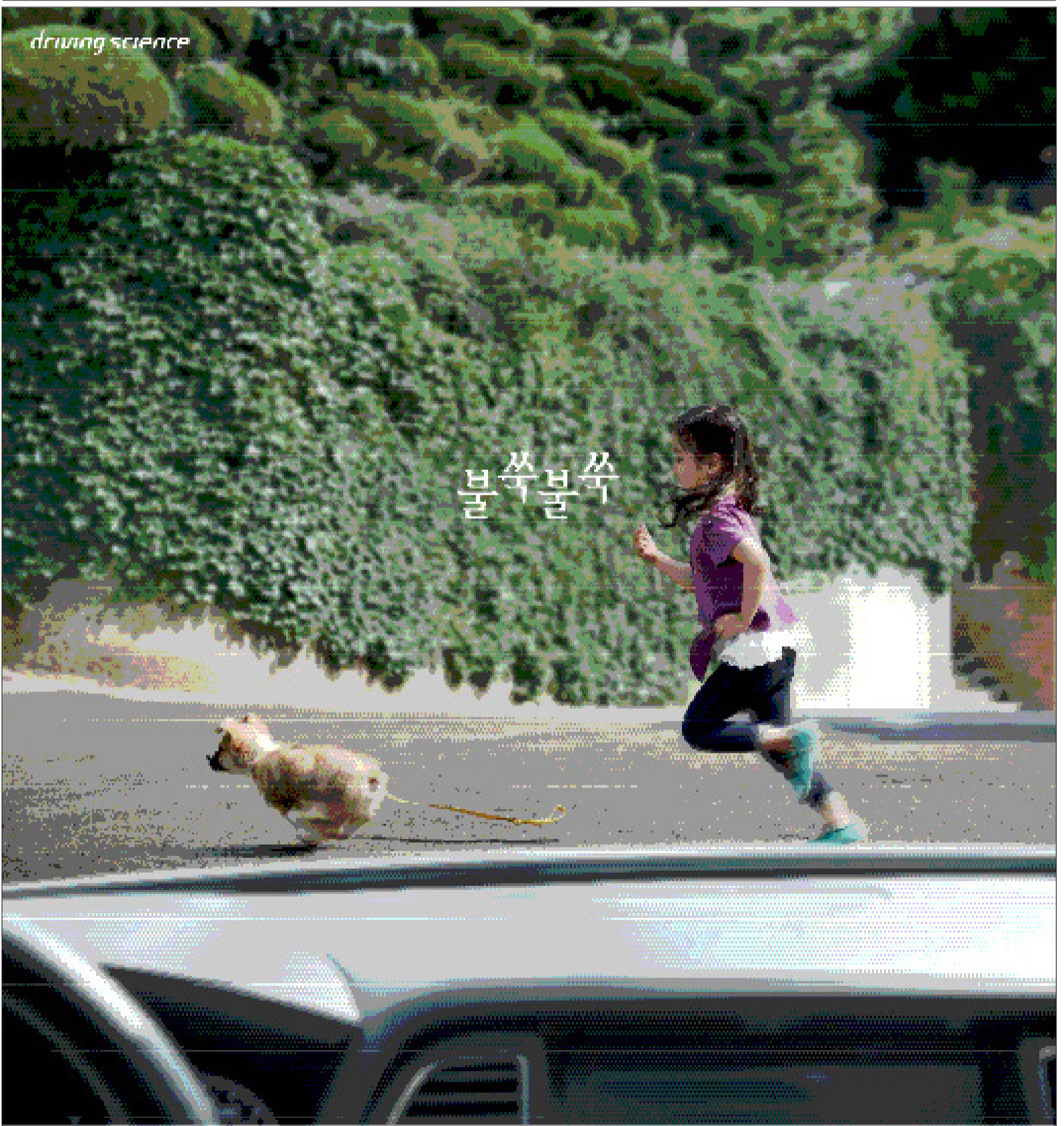
이 설치할 수 있다.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고품질 연료로 인정하거나 감량기기 설치용량을 확대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해, 에너지 효율, 연료품질 및 사용처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음식물쓰레기 고품질연료 인정은 수용하지 못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는 사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일처리능력 200kg까지 확대(2015년 7월 1일 시행)했다.

폐기물 고품질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해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고품질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전국적으로 59개소에 불과해 검사기관이 부족하지 않고 고품질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기피하는 주민정서를 고려해 검사기관 확대보다 공공기관 중에서 현재 지정된 검사기관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토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품질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을 현행보다 50% 인하하는 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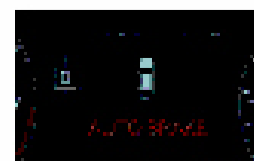
강남혁 기자



자동차가 먼저 알아서 조심하도록

아이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선가 불쭙불쭙 튀어나오고 자동차가 스스로 정지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 보호하는 첨단과목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과학-현대모비스



| 보행자 인식 긴급제동 (AEB-PO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Pedestrian) | 인간이 아닌 보행자를 위해 감지하여 긴급 제동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이며 보행자 인식 센서와 보행자 인식 알고리즘이 적용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